

지역 설화의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한 〈곰나루 설화〉 분석과 개발

오세정** · 윤인선***

【 차 례 】

- I. 서론
- II. 〈곰나루 설화〉의 존재 양상과 특성
- III. 〈곰나루 설화〉의 서사 분석
- IV. 〈곰나루 설화〉의 콘텐츠 개발 방안
 1.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개발
 2. 지시 대상 차원에서의 개발
 3. 의미·해석 차원에서의 개발
- V.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지역 설화, 즉 전설은 지역민의 삶·사유·문화·역사가 응축된, 지역의 정체성을 담지한 주요 문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의 문화 산업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전설은 스토리텔링의 원천 자료이자 모티프나 배경이 되며, 개발의 논리를 제공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지역 설화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개발 방안이나 방향에 대한 심화되고 체계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발의 원천인 설화에 대한 분석 방법과 설화를 토대로 콘텐츠의 개발 방법이 상호 유기적이며 통합된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지역 설화 텍스트의 분석과 설화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하였다. 3항성 범주를 활용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1)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주저자,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ohsj@chungbuk.ac.kr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shalul@hanmail.net

한 서사 분석 틀을 충청도의 대표적 지역 설화라 할 수 있는 <곰나루 설화>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틀을 연계·확장하여 콘텐츠 개발 방안을 기획하였다.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은 세계와 인간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 범주로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 관계성, 법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1차 분석은 전설 서사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고, 2차 분석은 전설 서사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3차 분석은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결합하여 종합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설의 서사 텍스트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의 체계적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1차성 분석을 토대로 설화의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고, 2차성 분석을 토대로 전설의 지시 대상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고, 3차성 분석을 토대로 전설의 의미와 해석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설화 분석과 개발의 통합적 방법은 개별 사례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열쇠어 : 지역 설화, 전설, 문화콘텐츠, 3항성, 서사 분석, 콘텐츠 개발, <곰나루 설화>

I. 서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인문학 연구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학 연구의 오랜 전통과 축적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술, 교육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의는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문화 산업화 방안 연구가 결합된 융합 연구로서 지역 설화 콘텐츠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문화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인문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를 새로운 매체와 결합시켜 콘텐츠로 개발하는 이른바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구술 전승(口述傳承)되는 이야기, 즉 설화(說話)를 대상으로 콘텐츠화하는 시도는 스토리텔링 전략

의 부흥과 맞물려 인문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설화를 민족의식이 담긴 서사 텍스트의 원형으로 간주하면서 한국 전통의 문화 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합하다고 여기게 되었다.²⁾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설화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필터링 과정을 거쳐 대중성을 가지며 완성도가 높으며, 그래서 현대의 발달된 매체를 통한 다양한 개발이 용이하고 서사적 상상력 발휘할 재료로 적합하다는 것이다.³⁾

새롭게 개발, 창조되는 문화콘텐츠로서 갖추어야 할 점이 독창성과 보편성이라고 할 때,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전통 설화는 이러한 요구에 잘 부합한다. 특히 지역과 밀착되어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는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쉽게 확보하며 동시에 지역 문화 산업과 결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역 설화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소재 설화 처럼 구체적 배경과 증거물이 있고 내용이 널리 알려진 설화들을 대상으로 콘텐츠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⁴⁾ 최근에는 지역의 문화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혹은 그 일환으로 특정 지역과 밀착된 지역 설화

1) 구비설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의 연원이며, 전승 집단의 인식과 문화를 잘 나타낸다.

오세정,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콘텐츠 교육 방향-구비설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17, 15~16쪽.

2) 김만식, 「설화의 문화 콘텐츠화 전략에 대한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3),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2, 143~144쪽.

3) 조해진·박영호, 「판타지 장르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고전설화 연구-고전설화 “만파식적”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0, 567~568쪽.

4) 이규훈, 「‘거타지’ 설화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한국콘텐츠학회, 2008.; 정재진, 「처용설화의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9(4),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길찾기」,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화학회, 2009.;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김기덕·최승용, 「경북 포항시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방안-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칠포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⁵⁾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을 보면, 지역 설화의 콘텐츠화 연구에서 연구·개발의 원천 대상이 되는 설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공통의 논제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지역 설화의 콘텐츠화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지역 설화의 콘텐츠화를 위해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과 밀착된 설화는 이미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삶과 사유가 농축된 문화 자산이다. 전설은 실제 증거물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스토리텔링과 멀티유즈 콘텐츠를 기획하기에 유리하다. 전설 자체로서 이미 훌륭한 지역 문화 콘텐츠화의 원천 자료가 되지만, 연구의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더 적절한 텍스트를 선별·선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콘텐츠의 상용화와 대중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인 경우와 지역 정체성 강화와 지역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 등에 따라 개발 대상 설화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선례로 삼아 유사한 설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 콘텐츠를 수정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 동일 설화를 개발 대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콘텐츠화를 위한 토대 자료로서 지역 설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증거물과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 방식을 수립하는 작업으로, 콘텐츠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 작용하는 방법론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

5) 이원영, 「구비문학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현대적 전승 양상」,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박미선,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화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5(4), 한국지역문화학회, 2018.; 신효림, 「봉정사 창건 설화의 두 서사적 층위와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이호상, 「지역 문화콘텐츠 기반 문화상품의 융·복합적 개발방안 고찰-부산지역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0.; 이지훈, 「국내 문화원형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문화 기획 연구: 제주 설화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들의 많은 경우가, 설화의 콘텐츠화의 작업에서 있어서 원론적 차원의 논의로 한정되거나 자의적으로 선택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혹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라기보다 현황 분석과 제언을 쓰는 보고서 차원의 논의도 많다. 이는 원천 자료라 할 수 있는 설화에 대한 분석을 치밀하게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발되는 현상이다. 어떤 감성이나 사고, 관념을 서사라는 텍스트로 전환하였고, 그 텍스트를 활용해서 다시 또 다른 콘텐츠로 창작해야 한다.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인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지가 명료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충청도의 대표적 지역 전설이라 할 수 있는 <곰나루 설화>를 대상으로 설화를 분석하고 그것의 콘텐츠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곰나루 설화>는 문학, 역사학, 민속학 등에서 주목받는 지역 설화이며, 전승 지역인 공주에서 이 설화를 자기 고장의 대표 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공주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콘텐츠화가 진행된 상태인데,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개발을 요한다. 논의의 순서는 <곰나루 설화>의 존재 양상과 특성을 먼저 살피고, 전설 서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때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학뿐 아니라 문화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호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개발 방안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II. <곰나루 설화>의 존재 양상과 특성

<곰나루 설화>는 ‘곰아나루 설화’, ‘고마나루 설화’로도 불리며, 충남 공주 지역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전하는 지역 전설이다. 이 설화가 주목받은 대표적 이유는 한국의 대표 신화라 할 수 있는 <단군신화>, 그리고 중국 소수 민족의 시조 신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곰과 사람의 결합, 그리고 그 사이 자식의 탄생이 공통점인데, 이를 통해 고아시아족 문

화 이동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⁶⁾ 이 같은 신화적 성격이 강한 이 설화는 공주 지역에서는 지역 밀착형 전설로 전하지만 이본으로 추정되는 야담이나 구술 전승되는 민담도 있다.⁷⁾

실제로 이 설화는 ‘웅진(熊津)’이라는 구체적 지명과 함께 곰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내용으로 인해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백제의 수도 웅진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서의 연구,⁸⁾ <단군신화>의 연관성과 함께 신화적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⁹⁾ 동물과 인간의 결합 등 설

6) 편집위원회 편, 『한국민속문학사전』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67쪽.

7) 야담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우야담(於于野談)』의 <암곰과 함께 산 인제현(麟蹄縣) 백성>이다. 곰과 사람이 결합하였다가 남자가 도망간다는 줄거리는 동일하나 이 야담은 여기까지 차용하고 곰과 살면서 재산을 축적한다는 점, 그 사람을 흉내 내다가 낚패를 본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크다. 이야기의 배경도 공주가 아니라 강원도 인제현이다. 공주의 설화와는 달리 지명의 유래에 대한 것이나 공간적 배경 등에 있어서 증거물로 기능하는 것이 없다.

김해정, 『『於于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45, 동양고전학회, 2011, 144~150쪽.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곰나루 전설> 관련 설화 중에는 공주 지역과 관련이 떨어지는 민담화된 것으로 <암곰과 살았던 백령도 도사>, <곰이 낳은 자식>, <곰과 혼인한 노인>이 전한다. 이 설화들은 주로 곰과 인간의 결합을 다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였고 다른 흥미 요소를 덧붙였다.

김균태, 「곰나루 전설의 변이와 의미」, 최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179~184쪽.

8) 최래옥은 <곰나루 설화>는 백제의 웅진 천도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로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후대에 온 다른 민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전설이라고 보았으며, 곰의 비극적인 죽음은 백제의 멸망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김균태도 <곰나루 설화>가 백제의 천도 과정에서 선주 세력과 이주 세력 간 결합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았으나 곰의 죽음은 수도를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토착 세력과의 갈등을 보여준다는데 차이를 보인다. 강현모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곰의 죽음은 부여로의 천도와 백제의 멸망 둘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상웅은 관련 역사적 자료와 현장 자료를 더 보완하여 <곰나루전설>를 백제의 웅진 천도 시기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마한계 토착 집단 중 고조선 곰 신앙 전통을 계승한 신화를 가진 집단과 연결시켰다. 백제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면서 이 집단이 약화되고 설화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았다.

최래옥,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김균태, 「公州地域의 곰傳説」, 『한남어문학』 13,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7.; 강현모, 「백제 건국신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이상웅, 「百濟 熊津期 곰 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穴寺」, 『史叢』 7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0.

화 모티프나 설화 이본 간 비교 연구¹⁰⁾ 등이 이루어졌다.

<곰나루 설화>의 가장 오래된 채록 자료는 1935년에 일본어로 간행된 『忠南郷土誌』에 전한다. ‘전설(傳説)’ 항목에 한 편, ‘고적(古跡)’ 항목에 한 편, 총 두 편이 실려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공주 입구 금강에 ‘웅진’이라는 못이 있다. 근처 연미산에 커다란 암곰이 살았다. 짝짓기를 위해 수컷을 기다리다가 하루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굴로 데려와 음식을 먹였다. 곰이 남자를 가둬두고 매일 먹을 것을 구해 주었다. 1년이 지나 곰이 새끼를 낳았는데 반신이 곰이었다. 새끼를 낳았으니 도망

-
- 9) 조현설은 웅녀의 원형을 찾기 위해 중국 소수 민족 기원 신화와 <곰나루 설화>를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어원커 신화, 단군신화, 봉화산 암곰, 곰나루 설화를 연결시켜 살펴보면, 남성 지배 군력이 등장하면서 기존 여성신의 형상이 사라지고 전설로 전환되어 전승되었다고 보았다. 김현선은 한국, 만주, 아이누 신화와 서사시를 비교하였으며 <곰나루 설화>는 신화의 소멸 과정에서 파생된 전설로 보았다. 엄원희는 동북아 곰신화를 대상으로 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곰 신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곰나루 설화>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상징하며 서사 속 곰의 죽음은 신화로서의 가치를 잃게 만들과 동시에 자연과의 대립에서 인간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김현선, 「동북아시아 곰신화 비교와 곰의례 연구-한국, 만주, 아이누의 곰신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5.; 엄원희, 「한국 곰 신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문제」,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2011.
- 10) 강진옥은 이물 교혼 모티프가 나타나는 설화의 한 유형으로 곰나루 설화를 살펴보았다. 그는 <곰나루 설화>에서 남자와 곰의 이별은 인간과 자연의 일치에서 점차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김혜정은 ‘인간과 곰의 결연’ 모티브에 주목하여 <단군신화>, <곰나루 설화>, <암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티프가 신화, 전설을 거쳐 어떻게 민담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김유미는 <곰나루 설화>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통해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보았다. <단군신화> 이후로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곰의 모습은 신성이 결여되고 부정시되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여성을 향한 차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김혜정, 앞의 글.; 김유미,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가지 앓을 거라 여겨 동굴 입구를 더 이상 막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나그네가 굴을 빠져나와 웅진에 내려가 배를 타고 달아났다. 곰이 발견하고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나그네는 듣지 않았다. 곰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새끼와 함께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웅진(熊津)’이라는 이름은 이런 전설에서 생겼다.¹¹⁾

[자료 2]

공주를 서쪽에 ‘웅진’이라는 나루가 있다. 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사냥꾼이 암곰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활을 쏘려 했으나 불쌍해서 하지 못했다. 잠에서 깬 곰이 사냥꾼을 붙잡아 연미산에 있는 동굴로 데려가 2년을 함께 살았다. 둘 사이에 세 명의 자식이 태어났다. 곰은 남자를 신뢰하고 밖으로 나갈 때 더 이상 입구를 막지 않았다. 남자는 굴을 빠져나와 고깃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를 본 곰이 자식 셋을 금강에 던지며 남자를 바라보았으나 남자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자 곰은 슬픈 소리를 지르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야기가 퍼져 백제왕도 알게 되었고, 왕은 관리를 파견하고 사당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후 배가 뒤집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없어졌다. 이런 연유로 이를 ‘웅진’이라고 부른다.¹²⁾

두 자료는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과 사건, 지명 유래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료 2에서는 곰이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이후에 진행된 사건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1930년대 당시 공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곰나루 설화>의 모습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47년 최상수가 편한 『조선민간전설집』에 소개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옛날 공주에 사는 한 청년이 산에서 놀다가 길을 잃었다. 굶주리고 지친

11)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 『忠南鄉土誌』, 京人文化社, 1935, 14쪽.

12) 같은 책, 29쪽.

청년이 굴속에서 쉬고 있다가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청년은 처녀에게 사정을 알리고 먹을 것을 구하였다. 처녀는 사슴고기와 과일을 구해 청년에게 주었다. 처녀는 청년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청년은 감사하며 그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며칠을 지냈다. 하루는 청년이 우연히 처녀가 곰으로 변하여 사슴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청년이 놀라 도망치자 곰이 쫓아왔다. 쫓기던 청년이 산 아래 금강에 뛰어들자 곰도 뒤따라 뛰어들었다. 곰이 해엄을 못해 슬픈 소리를 지르며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곳을 ‘웅천(熊川)’ 또는 ‘웅주(熊州)’라고 부르게 되었다.¹³⁾

이 자료는 1947년에 간행되었지만 채록한 시기와 장소는 ‘1935년 6월, 공주군 공주면’으로 나온다. 논자에 따라서는 1935년에 간행된 <곰나루 설화>를 저본으로 한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¹⁴⁾ 이 자료는 앞의 두 자료와 달리 청년과 처녀의 사랑과 이별을 부각하여 극화하고 있다. 곰이 인간 처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는 점,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이후 주목할 자료로 1957년 공주군에서 간행한 『공주군지(公州郡誌)』에 실린 것이다. 관에서 편찬한 것으로 지역 설화에 대한 정본화(定本化) 작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4]

이 나루 언덕 바위굴에 곰이 살았고, 이 나루터에서 곰이 빠져 죽었기 때문에 ‘곰나루’ 또는 ‘곰아나루’라고 부른다. 옛날 산림이 울창하고 인간과 촌락이 적었던 시대의 일이다. 약초 캐는 남자가 여미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곰이 짐승의 고기와 초근을 구해 와서 남자에게 먹였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았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곰과 함께 부부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는

13) 최상수, 『조선민간전설집』, 을유문화사, 1947, 129~130쪽.

14) 구중희, 「고마나루 설화의 민속학적 의의와 활용 방안」, 『한어문교육』 1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7, 176~177쪽.

자식이 태어났다. 자식이 태어나자 남자를 신뢰한 곰은 밖으로 나갈 때 입구를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남자는 자유를 얻자 인간이 그리워 곰이 건너지 못할 강에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갔다. 곰이 도망가는 남자를 보자 새끼를 불려와 보이면서 남자를 유인하였으나 남자는 거부하고 강을 건넜다. 실망한 곰이 새끼를 물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빠져 죽었다. 어미 곰과 자식 곰이 죽은 후 이 나루는 수심이 깊어져 나루터가 되었다. 나루터가 된 후 바람이 일어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히는 폐단이 있었다. 사공이 웅신제(熊神祭)를 지내 왔는데, 공주가 도시가 된 후에는 관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웅신제를 연중행사로 지냈다. 지금은 강바닥이 높아져 곰이 살던 굴은 매몰되었고 수심이 얕아져 위험이 없어 웅신제가 폐지되었다.¹⁵⁾

이 자료는 1935년에 나온 자료 1, 자료 2를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자료 2에서처럼 곰 사후의 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 2에서는 백제왕이 명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반해, 자료 4에서는 처음에 사공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후 관에서 주관한 것으로 나온다. 정확히 관 주관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백제 왕의 명에 따른 제사라는 점은 역사적 시뮬거리가 될 수 있기에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군에서 일종의 관 공식의 이야기가 정리됨으로써 <곰나루 설화>는 비교적 많은 변형 없이 전파, 전승되었다. 자료 4가 간행된 무렵, 1958년 공주읍에서 채록했다는 <곰나루 설화>가 1973년에 간행된 사례가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5]

공주 서북쪽에 웅진(곰나루 또는 고마나루)이란 나루터가 있다. 옛날 연미산의 큰 굴에 암곰이 살았다. 하루는 금강에서 한 어부를 잡아다가 굴속에 가두고 남편으로 삼았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구해 주고, 출타할 때는 입

15) 공주군지편찬위원회, 『공주군지』, 공주군유도회, 1957, 32~33쪽.

구를 막아서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식 두 명이 태어났고, 안심한 곰이 입구를 개방하고 외출하였다. 남자는 달아났고 이를 알아차린 곰은 새끼 두 마리를 보이면서 돌아오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거절하고 강을 건너 도망쳤다. 곰은 절망하여 새끼들과 더불어 투신자살하였다. 이로 인해 웅진이라 부르게 되었다. 곰이 죽은 뒤로 풍랑이 심하고 배가 전복되는 일이 잦았다. 제단을 설치하고 봄, 가을로 위령제를 지냈는데 이후에 사고가 없었다.¹⁶⁾

다른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 남자의 정체는 어부로 나오는데, 이 설화의 남성 인물은 나그네(자료 1), 사냥꾼(자료 2), 청년(자료 3), 채야자(자료 4)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료 5의 특색이라면 다른 자료에 비해 곰이 남자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강조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이미 언급된 자료들의 내용과 흡사하며 이야기는 더 축약되어 있다.

1935년에 처음 자료가 기록되어 소개되고 난 이후 40~50년대에 채록 혹은 간행된 자료들이 나왔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전국적인 설화 조사 작업이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한국구비문학대계』로 간행되었다. 동시에 개인 연구자들이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집이 더불어 간행되기도 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3편이 전한다.¹⁷⁾ 이 설화들은 구연자가 직접 구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앞의 자료들처럼 요약된 형태가 아니라서 세부 묘사나 서술자 개입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골격은 유사하다.

자료들의 관계를 보면, 우선 최초 자료 1, 2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토

16) 임현도, 『한국전설대관: 백제고도공주지역』, 정연사, 1973, 69~70쪽.

17)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에 따르면 ‘곰나루’의 표제 하에 <곰나루>(『한국구비문학대계』 1-4), <구례 곰소에 관한 곰나루 형 전설>(5-2), <고마나루의 유래>(5-4) 세 편이 있다. 그런데 공주를 배경으로 한 것은 <곰나루>와 <고마나루의 유래> 두 편이며, <구례 곰소에 관한 곰나루 형 전설>은 구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곰’의 표제 하에 곰과 인간의 결합을 다룬 설화들 중 ‘곰나루’ 유형과 구별되는 것은 따로 항목화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I), 조은문화사, 2002, 51~52쪽.

리는 거의 유사하다. 차이점은 자료 1이 인물 중심의 서사 위주라면, 자료 2는 여기에 서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에 빠져 죽은 꿈을 위해 사당을 짓게 하고 제사를 지냈고 이로 인해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료 3은 자료 1과 유사하며 이야기 구성에서 새로운 것이 첨가된다. 인간과 꿈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화한 처녀와 인간 총각이 만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꿈과 인간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료 4, 5는 자료 2와 유사하다. 꿈의 자살 이후 강에서 발생한 사고, 위령제 실시와 그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다.

<곰나루 설화>는 지역과 밀착된 전설로 전승되던 것이 1935년에 처음 채록되어 소개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채록·간행되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주 지역에서는 지속해서 위령제를 지내왔으며 전설이 지시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72년에는 곰 석상이 발견되어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높여 주었다. 현재 공주에서는 ‘고마나루’의 타이틀을 붙인 향토 연극제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축제에서는 <곰나루 설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의 상징물이나 각종 명칭에서도 전설의 활용도가 높다.

Ⅲ. <곰나루 설화>의 서사 분석

<곰나루 설화>는 공주의 지명, 공주의 금강에 위치한 나루터의 명칭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증거물이 뚜렷하며 전설이 지시하는 대상과 전설을 오랫동안 전승 집단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한 의미 관계를 인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설은 신성(神性)을 지시하는 신화나 특별한 지시 세계가 없이 자족적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민담과

달리 실재의 혹은 실존의 증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시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설은 실제 대상을 지시하거나 실제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지표기호(index)’로 간주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전설은 증거물과 관련된 ‘지표적 자질’이 다른 기호적 성격보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¹⁸⁾

전설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지표성을 중심으로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에 접근할 수 있다. 전설 서사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적 틀로는 퍼스(C. S. Peirce)의 1차성(firstness), 2차성(secondness), 3차성(thirdness)의 ‘3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퍼스는 세계와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 범주로 이를 설정하였다. 이 모델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대상과 사고의 범주로 전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¹⁹⁾ 이를 활용해서 전설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단계를, 전설 서사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 전설 서사가 지시하는 증거물과 그것과 관련된 것의 분석, 전설 서사와 증거물과의 관계와 의미를 모두 고려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접하는 것은 서사 형태로 존재하는 전설 그 자체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서사의 구성 요소와 결합 원리 등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야기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의 형식을 파악하는 작업인데,

18) 오세정,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2019, 43~47쪽.

19) 퍼스는 세계와 인간 사고가 동일한 범주를 설정한다. 퍼스는 세상을 기호로 표현하며, 기호로 이해하는데 이때 1차성(firstness), 2차성(secondness), 3차성(thirdness)의 범주가 전제되고 있다. 1차성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바로 그 자체의 것, 2차성은 1차적인 것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 3차성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1차성, 2차성, 3차성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가령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통합적 존재’, ‘느낌/ 의지나 지각/ 사유’, ‘가능성/ 실재/ 법칙’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관련된 논의는 아래 글 참조.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74~77쪽.; 정해창, 『퍼스의 미완성 체계-프래그마티시즘』, 청계, 2007, 174~197쪽.; 코르넬리스 드 발, 『퍼스 철학의 이해』, 이윤희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62~73쪽.; Charles S. Hardwick ed., *Semiotics and Signif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pp.24~31.

이 이야기는 자족적인 구조 혹은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실제 증거물을 지시하는 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서사가 관계 맺고 있는 현실 세계의 실제 증거물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 1차 분석 대상이 텍스트 자체의 형식 구조라면, 2차 분석은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과 텍스트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이 같은 2차 분석은 텍스트와 관련된 관계 구조 분석이 될 것이다. 1차 분석과 2차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는 3차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른 말로, 텍스트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토대로 의미 구조가 결정된다. 3차 분석은 텍스트가 지시 대상과 연결됨에 따라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문자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최종적인 의미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설 서사 분석 과정은 1차 분석과 3차 분석 사이에 존재하는 2차 분석의 매개 역할이 다른 설화 문학의 서사와 구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²⁰⁾ 다시 말해 전설은 증거물이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의미작용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곰나루 설화>의 서사 분석을 위해 앞에서 다룬 다섯 자료를 대상으로 하나의 이상적 유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곰나루 설화>는 암곰과 인간 남성의 하위 서사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곰의 죽음 이후 서사는 첨가·누락·강조 등 다소 차이가 있다. 다섯 편의 자료 중 서사의 구성 요소가 가장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상세한 자료 4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논리상 연쇄를 고려한 시퀀스를 제시한다. 의미상 단위로 분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입부

- 1-1. 웅진 나루 언덕 바위굴에 곰이 살아서 혹은 곰이 나루(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곰나루라 부른다.

20) 퍼스 범주론의 3항성에 기반한 서사 분석 모델은 아래 글 참조.

오세정, 「전설의 서사론-3항성에 기초한 서사 분석 모델 기획」, 『기호학 연구』 65, 한국기호학회, 2020, 84~85쪽.

- 1-2. 옛날 산이 울창하고 인간과 촌락이 적었던 시대의 일이다.
2. 곰과 인간의 이야기(곰과 인간의 결합과 분리)
 - 2-1. 약초 캐는 남자가 연미산에 약초를 캐러 가다.
 - 2-2. 큰 암곰을 만나 사로잡혀 곰과 함께 굴에서 살다.
 - 2-3. 곰이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나갈 때는 굴의 입구를 막다.
 - 2-4. 남자는 곰과 더불어 부부생활을 하다.
 - 2-5. 남자와 곰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다.
 - 2-6. 곰이 남자에게 믿음이 생겼고 도망할 의심을 하지 않다.
 - 2-7. 곰이 굴의 입구를 막지 않고 나가다.
 - 2-8. 남자가 인간이 그리워서 곰이 건너지 못할 강에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가다.
 - 2-9. 곰이 도망가는 남자를 보자 새끼로 남자를 유인하였으나 남자는 돌아보지 않고 강을 건너다.
 - 2-10. 곰이 실망하여 새끼를 물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물에 빠져 죽다.
3. 곰의 죽음 이후 이야기
 - 3-1. 곰이 죽은 후 이 나루는 수심이 깊어서 나루터가 되다.
 - 3-2. 나루터가 된 후 바람이 일어 배가 부서지거나 뒤집히는 일이 간간이 발생하다.
 - 3-3. 사공이 웅신제(熊神祭)/제사를 지내 오다.
 - 3-4. 배 사고가 사라지다.
 - 3-5. 공주가 도시가 된 후에는 관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웅신제를 연중 행사로 지내다.
4. 종결부
 - 4-1. 지금은 강바닥이 높아져 곰의 굴은 매몰되었다.
 - 4-2. 수심이 얕아져 위험이 없어 웅신제가 폐지되다.

<곰나루 설화>의 1차 분석은 전설 서사 자체의 형식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야기 구성하는 요소와 그 특성, 배열 규칙 등을 파악한다. 우선 이 이야기는 ‘도입부’, ‘곰과 인간의 이야기’, ‘곰의 죽음 이후 이야

기’, ‘종결부’로 나눌 수 있다. 도입부는 웅진의 명칭의 유래가 이 지역에서 살던 곰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관련 이야기가 먼 옛날에 있었던 것임을 언급한다(1-1~2). 도입부는 이 이야기가 먼 전설임을 환기하면서 이후 이어질 내용에 대한 안내 기능을 하는 외부 액자에 해당한다. 이야기 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곰과 인간의 이야기’인데, ‘암곰과 남자의 만남(2-1~2)’, ‘암곰과 남자의 동거와 출산(2-3~6)’, ‘암곰으로부터 남자의 도망(2-7~8)’, ‘암곰과 자식의 죽음(2-9~10)’의 하위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곰의 죽음 이후 이야기’는 곰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강에서 행선 사고 발생(3-1~2)’, ‘제단 설치 및 제사 실시(3-3, 5)’, ‘행선 사고 사라짐(3-4)’으로 시퀀스가 이어진다. 이 두 번째 서사는 암곰과 남자의 이야기가 끝났어도 곰의 죽음은 이후에도 웅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종결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공간이나 환경의 변화, 곰을 위한 제사의 시행 여부 등을 알려준다. 전설 서사의 텍스트 형식 구조를 핵심 내용과 상관 내용²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기능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 내용 (1)	핵심 내용 (2)	핵심 내용 (3)	상관 내용 (4)
내용	웅진 지명 내력 강, 나루터, 산, 동굴 등 배경/시간 배경	남자와 곰의 만남, 동거, 출산, 남자의 도망, 곰과 자식의 죽음	강의 범람, 풍랑 등으로 행선 사고 발생, 제단 설치, 제사 시행	강에서의 행선 사고 및 제사 관련 현재 상황
기능	외부 액자 기능, 내부 서사의 신빙성 부여	핵심 서사, 이야기 형태를 갖춘 문학적 서사	핵심 서사에 이어지는 후일담, 핵심 서사의 연속성 부여	현재 시점에서의 전설 관련 정보 제공

21) 서사 구조를 ‘핵심 내용(topical content)’과 ‘상관 내용(correlated content)’으로 나누는 것은 그레마스의 방식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레마스는 서사의 구조를 크게 ‘정돈된 내용(posed content)’과 ‘전도된 내용(inversed content)’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핵심 내용과 상관 내용으로 나누었다.

A. J. Greimas, “The Interpretation of Myth: Theory and Practice”, Pierre Marranda, Ello Köngös Marranda ed., *Structural Analysis of Oral Tradi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71, p.83, pp.91~92.

2차 분석은 전설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과 텍스트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전설 서사의 관계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설이 지시하는 실제 지시 대상, 즉 증거물이다. 이 이야기는 내부 서사가 실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는 각종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액자식 구성을 통해 도입부와 종결부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웅진’이라는 지명이며, 첫 번째 서사인 곰과 인간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든 공간적 배경이 증거물이 되고 있다.



[그림 1] 돌곰
(출처: 공주 국립박물관)

곰과 사람이 만난 산, 그들이 동거했던 동굴, 남자가 도망가고 곰이 빠져 죽은 강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서사인 곰의 사후 이야기와 관련된 증거물로는 강, 제단, 사당 등의 물질적 증거와 제사와 같은 관습이 있다.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과거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강의 범람이나 풍랑의 발생과 같은 자연 현상도 증거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과거에 있었던 증거물이 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전설이 아무리 증거물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신뢰성은 떨어지거나 증거물 자체가 소멸되어, 과거에나 그랬었을 법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 설화는 20세기까지 제사를 지냈다는 구체적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곰의 사후 서사와 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증거물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바로 제사를 받던 곰을 상징화한 조형물이 발견된 것이다. 높이 34cm, 너비 29cm의 이 ‘돌곰’은 백제 시대 조각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암곰과 인간 남성의 동거, 둘 사이에서의 자식 출산이라는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이토록 많은 증거물들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지시하고 있으며, 제사를 지냄으로써 곰의 영향력과 신성함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은 이 전설이 갖는 주요한 정체성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설에 대한 3차 분석은 전설 텍스트가 지시 대상과 연결됨에 따라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한 것이다. 1차 분석에서 서사 자체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3차 분석은 여기에 2차 관계 구조를 결합시켜 종합적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 의미 구조 분석은 전설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이나 관습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전설이 갖는 지표적 성질이나 관련된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곰나루 설화>에 대한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공주 지역의 관에서는 ‘곰사당’을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기념물 제2호(공주시 웅진동 452-3 소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기 안내문의 내용과 같다.

곰나루는 공주의 옛 지명으로 원래는 ‘고마나루’라고 불렸으며, 한자로는 ‘웅진(熊津)’이라 한다. 이곳을 곰나루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처녀곰과 나무꾼 총각에 얽힌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실제로 곰나루의 북쪽에 솟아 있는 연미산 중턱에는 전설 속의 곰이 살았다는 동굴이 곰나루를 내려다보고 있다. 곰나루 전설 이후 마을에서는 곰의 원한을 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나루터 인근에 곰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왔다. 이 일대에는 원래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신단(熊神壇) 터가 남아 있는데,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국가의 제사 공간이었으며, 일반 서민들의 주요 생활터이자 수상 교통로로써 민중의 정서와 애환이 짙게 서려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곰사당과 관련된 실제 곰상은 공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²²⁾

22)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기념물 제2호 곰사당 안내문

이 안내문은 <곰나루 설화>와 설화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의미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전설은 “치녀곰과 나무꾼 총각에 얽힌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로 규정되며, 사당과 제단을 짓고 제사를 올리게 된 이유를 “곰의 원한을 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곰의 원한으로 인한 강의 범람, 배의 파손이나 전복에 대한 언급은 없이²³⁾ 곰 입장에서 감정과 그 곰에 대한 위로를 중시하고, 곰을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점을 부각한다. 최근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면 어쨌든 금강에 투신하여 자살한 곰을 위해 제사를 지냈고,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가 이 곰을 위해 지냈던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²⁴⁾ 적어도 지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곰나루 설화>는 사람과 곰의 결합, 그 사이에 자식 출산, 사람과 곰의 분리, 곰과 반인반수 자식의 사망이라는 동물과 인간의 결합과 분리에 따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 곰의 자살 이후 사건은 곰이 투신한 강의 범람하거나 풍랑이 크게 일어 행선(行船)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곰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리자 이후 문제가 사라졌다는 후일담이 결합되어

23) 강의 범람이나 배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이미지를 고려했을 것이고, <곰나루 설화>를 부정적·파괴적 이야기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야기의 비극미를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24)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산천에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직(社稷)에서 드리는 제사는 통괄적인 것이었는데, 토지신에 있어서도 특정한 산이나 강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다. 지방의 명산대천에 제사하는 의식인 제주현명산대천의(祭州縣名山大川儀) 등이 있었다.

편집위원회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557쪽. 지방의 명산대천에 지내는 제사 중 금강에서의 제사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전국의 지역별 대표적 산천에 제사를 지낸 것이지 곰을 원혼을 위로하려고 이 국가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단의 명칭이나 제사지와 이후 향토 자료를 통해 지역민들은 웅진에서의 제사를 이 전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공주의 향토지에 따르면, “곰사당은 통일신라 시대에는 서독(西瀆), 조선 시대에는 남독(南瀆)으로 숭배되어 왔고 웅진 수신제를 지내는 곳”이라 한다. 1982년 실제 곰사당이 위치했던 곳에 새로이 곰사당을 건립하였고, 1997년 공주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었다.

디지털공주문화대전(gongju.grandculture.net), <곰나루 전설>, <곰사당>

있다. 후일담의 주요 기능은 꿈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서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지시하며, 증거물의 의미를 고착시킨다. 또한 서사로 표현된 사건과 그로 인한 꿈의 죽음을 위로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전설은 독특한 사건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지시하고 있다. 명칭의 유래를 통해 사건을 증거물로 고정시키며, 여기에 더해 제사라는 비물질적 증거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이 후까지 전설의 메시지, 그것의 의미나 영향력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전설은 유일성과 지속성의 지표적 자질을 강하게 드러낸다.

IV. <곰나루 설화>의 콘텐츠 개발 방안

이상의 <곰나루 설화>의 서사 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곰나루 설화>의 콘텐츠화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설화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살핀 세 가지 구조별 분석을 개별적·독립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곰나루 설화>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와 지시 대상, 다양한 맥락 등을 모두 포괄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이 전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설화를 콘텐츠화하는 작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 방안을 기술하는 데 있어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구조별로 항목화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개발

첫째, <곰나루 설화>의 서사 자체에 대한 측면, 즉 형식 구조의 측면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우선 설화 자체의 스토리 변형, 내지 재창조가 될 것이다. 즉 <곰나루 설화>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작업인 것이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존의 담화(discourse)를 통해 스토리(story)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담화

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²⁵⁾의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모본(母本)’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시 쓰기’하는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술 전승되는 설화는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 스토리텔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술 전승 과정 자체에서 이미 원본이 아닌 다양한 이본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이본의 변형이 크게 없었던 <곰나루 설화>이지만 몇 가지 변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별로 서사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	인간과 곰의 결합과 분리	곰 사후 사건	종결부
자료 1	웅진(뫼) 소개	나그네 반인반수 아이/ 배타고 도강/ 새끼와 투신	없음	웅진 명칭 유래 소개
자료 2	웅진 (나루) 소개	사냥꾼/ 활쏘려다 멈춤/ 3자식/ 배타고 도강/ 자식 죽인 후 투신	백제왕이 알게 됨/ 관리 파견/ 사당 건립/ 제사/ 강의 사고 사라짐	웅진 명칭 유래 소개
자료 3	없음	청년/ 길 잃고 굴 속 휴식/ 처녀에게 음식 구걸/ 동침/ 곰이 처녀로 둔갑/ 남자 쫓다 강에 빠져 죽음	없음	웅천, 웅주 명칭 유래 소개
자료 4	웅진 명칭 소개	약초캐는 사람/ 1자식/ 헤엄쳐서 도강/ 자식 죽인 후 투신	수심 깊어짐/ 배 사고/ 사공이 제사/ 관에서 제사/ 사고 사람짐	굴 매몰/ 배 위험 사라짐/ 제사 폐지
자료 5	나루터 명칭 소개	어부/ 2자식/ 도강/ 곰과 자식 함께 투신	풍랑/ 배 사고/ 제단 설치/ 제사/ 사고 사라짐	웅진 명칭 유래

자료 3은 다른 자료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점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결합 과정이 특이하다. 다른 자료들은 암곰이 인간 남자를 납치하는 것

25) 신희림, 앞의 글, 186쪽.

으로 둘이 결합하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이 처녀를 우연히 만나 도움을 청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 다른 자료에서는 나그네, 사냥꾼, 채약자, 어부 등으로 남자가 표현되고 있는 반면, 자료 3의 남성 주인공은 산에 놀러온 ‘청년’이다. 이는 사랑을 다룬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이며, 대상인 암곰도 그에 대응하여 ‘처녀’이다. 두 주인공의 설정이 이렇게 됨으로써 서사의 세부 항목들은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당연하며, 두 청춘 남녀의 사랑과 이별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출산’은 누락되어 있다. 이밖에 자료 2나 4는 다른 자료에 비해 곰의 사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일담과 증거물과 밀착된 세부 내용을 상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풍부하게 늘려 다시 쓸 경우, 등장인물의 성격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지나가는 ‘나그네’보다는 ‘사냥꾼’으로 설정되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재창작이 용이하다. 실제 남성이 사냥꾼으로 나오는 자료 2에서는 잠들어 있는 암곰을 활로 사냥하려다가 갑자기 연민을 느껴 활을 쏘지 않는다. 가령, <곰나루 설화>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하자. 곰에게 쫓기는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도망갈 수 있을지를 설정할 때, 사냥꾼, 약초 캐는 사람, 어부 등의 캐릭터가 각각 사용하는 기술이나 아이템이 다르게 설계될 것이다. 이는 동화 재화(再話)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시 쓸 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본 스토리에 대한 약간의 변형도 수많은 다양한 경우의 하위 시퀀스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밖에 곰의 사후 서사에 관심을 두고 스토리텔링을 다시 할 수 있다. 곰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을 붙이고 살았고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떠난 남성으로 인한 좌절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곰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한 생명체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의 가장 극단적인 슬픔과 분노를 고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클의 복수와 그로 인한 공포를 중심으로 한 장르극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시 대상 차원에서의 개발

둘째, <곰나루 설화>에 대한 관계 구조의 측면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전설의 지시 대상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현재 공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 행사로 지역 축제나 지역 연극제 등이 있다. 1955년부터 시행된 ‘백제문화제’는 부여시와 공주시가 함께 개최하는 충남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축제이다. ‘고마나루 향토 연극제’는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성이 강조된 연극제라는 특색이 있다. 2021년까지 18회 개최된 이 연극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로서 지역 설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백제문화제에서 실연되는 대표적 콘텐츠로는 뮤지컬 ‘웅진 판타지아’가 있는데 2021년 공연한 ‘공산성 달 밝은 밤’은 공주 지역의 대표적 역사적 인물인 ‘무령왕’과 설화 속 인물을 재창작한 ‘고마나루 토착 부족 여전사 고마’가 주인공이다. 이처럼 공주의 각종 문화 행사는 <곰나루 설화>를 토대로 하거나 모티프화하여 콘텐츠가 기획되고 구성된다.²⁶⁾ <곰나루 설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축제나 연극제의 테마 기획 등을 통해 지속성과 확장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곰나루 설화>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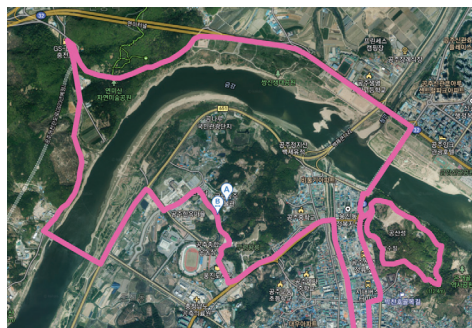
26) 공주 지역에서 행해진 각종 문화행사에서는 백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작 공연이 많았다. 뮤지컬의 경우는 주로 실존 인물인 무령왕에 대한 것이 많았다면, <곰나루 설화>는 뮤지컬, 연극, 무용 등에서 골고루 활용된 편이다. <곰나루 설화>를 토대로 창작 무용의 경우 2007, 2009, 2016년에 공연되었다.

윤영아·최선, 「백제문화 콘텐츠 활용한 공주지역 상설공연 정착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8(1), 한국무용학회, 2018,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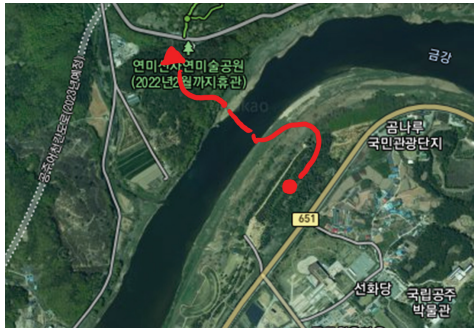
소재는 설화 관련 실제 증거가 되는 공간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야기에 실제 배경이 되거나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장소로 곰이 있었던 연미산, 그 산속에 있는 곰의 거주 공간이자 인간 남자와 거주했던 동굴, 남자가 도강해서 곰으로부터 도망쳤던 나루와 강, 곰이 자식과 함께 투신하여 자살했던 강과 강기슭, 운행하던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되었던 곳, 위령제를 지내던 곳과 사당 등이 있다. 설화와 관련된 공간은 산과 강에서부터 사당에 이르기까지 관련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 공주의 금강 기슭을 공원화하여 ‘고마나루’란 명칭으로 지역 명승 21호로 지정되어 있다. 넓은 솔밭이 조성되어 산책이나 휴식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입구 등에만 관련 정보가 소개되어 있고 곰 조형물을 제외하면 공원 자체가 특별한 테마로 조성되어 있다는 인상이 약하다. 연미산(동굴)-나루(강)-곰사당(곰 공원)을 잇는 경로를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 문화 공간으로 둘레길 조성 사업이 유행인데, 공주에도 ‘고마나루 명승길’이 있다. 이 명승길은 ‘곰나루 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총 14.04km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연미산,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 한옥마을, 공주 박물관 등을 경유한다. 그런데 고마나루 명승길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곰나루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나루터나 곰사당은 이 길에서 빠져 있다. 만약 곰나루 설화를 활용한 길, 가칭 ‘곰나루 전설길’을 새로 개발한다면 연미산(곰굴)과 금강 북쪽 기슭(곰이 투신한 곳), 강 건너기, 남쪽 기슭(남자가 도착한 곳), 곰사당과 곰공원(고마나루 솔밭)으로 이어진 길이 될 것이다.

그림 3에서 삼각형으로



[그림 2] 고마나루 명승길 1코스



[그림 3] 가칭 ‘곰나루 전설길’

표시된 곳이 연미산(곰굴)이며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곰사당이다. 연미산 아래 기슭에서 반대편 곰사당으로 이동할 때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⁷⁾ 이 길의 주요 경우지에는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구비되어 있다. 연

미산에는 자연미술공원에 각종 곰과 관련된 미술품과 전시물이 있고, 곰굴도 있다. 곰사당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곰과 관련된 조각품이나 관련 콘텐츠가 있다. 따라서 설화의 내용을 활용한 콘텐츠를 더 보완하면 새로운 탐방길이나 체험길로 손색 없을 것이다.

3. 의미·해석 차원에서의 개발

마지막으로 <곰나루 설화>의 의미 구조의 측면에서 콘텐츠 개발을 고민할 수 있다. 공주 지역에서는 이미 ‘웅진’이라는 지명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곰나루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이야기의 주인공인 ‘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미지와 상징이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공주시의 ‘시(市) 동물’로 곰을 지정하였고, 공주 소재 대학의 상징물이나 ‘웅진탑’과 같은 지역 상징 조형물로 곰이 사용되고 있다. 곰의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공주 지역에 있어서는 <곰나루 설화>로 포착되고 형상화한 것으로 제한하여 지역 이미지나 상징이 된 것이다. 공주대학의 ‘대웅상(大雄像)’의 비문에는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27) 현재 고마나루 명승 1길에서 도강(渡江)은 동쪽에서는 금강교, 서쪽에서는 공주보를 통해 육로로 이동한다.

좌절하지 않으며 넘치는 힘으로 꾸준히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네 꿈”이라고 쓰여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지의 각종 소개 글에서는 금강에 투신한 꿈이 이후 지역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공주 지역에서의 꿈은 인간과 교류하며,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행복을 관장하는 친근하면서도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캐릭터나 배경 지명과 같은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야기의 의미 차원에서 특정한 가치나 이념과 연관시키는 메타 의미작용을 통해 콘텐츠로서 <곰나루 설화>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실제 문화콘텐츠화 작업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제주의 돌문화공원과 <설문대할망과 오백 장군 설화>를 들 수 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돌을 재료로 하여 다양한 조형물을 구성하여 테마파크로 개발한 것인데, 이 공원의 조성 원리는 ‘설문대할망’과 그 자식인 ‘오백 장군’의 이야기이다. 관련 설화 중,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설문대할망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다는 이본을 활용하여 설문대할망을 ‘모성애(母性愛)’의 화신으로, 이 공원을 그러한 ‘모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다.²⁸⁾ 현재 공주에는 제대로 된 ‘꿈’ 관련 테마파크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곰사당 주변 공원이나 곰나루 국민관광단지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할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꿈의 조형물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주돌문화공원의 ‘모성애’처럼 이야기와 관련된 특정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

28) 설화의 의미 구조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은 설화의 특정한 의미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제주에 전하는 <설문대할망 설화>나 <오백장군 설화>는 비교적 이본이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특정 이본을 통해 설문대할망을 모성애의 화신으로,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이 모성애라는 것으로 환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반해 공주의 <곰나루 설화>는 비교적 단일한 이야기로 확정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설문대할망 설화에 관한 기본 논의는 아래 글 참조.

유정월,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여성문화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과적일 것이다. <곰나루 설화>와 관련해서는 ‘정(情)’이나 ‘자연 합일(自然合一)’과 같은 보편적이면서 쉽고 시의성 있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²⁹⁾ 이러한 테마가 확정되면, 공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구성 원리가 되며, 테마가 결합한 공간 기획을 통해 특색 있고 깊이 있는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곰나루 설화>는 한국에 전하는 많은 지명 설화와는 그 위상이 엄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기억할 만한 혹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마을이나 강, 산의 이름이 정해진다. 이때 이 해당 지역에서는 그 사건이 민간의 역사가 되어 전하지만 그 지역만 벗어나도 그냥 한 마을의 전설일 뿐이다. 그런데 <곰나루 설화>는 웅진의 지명 유래 전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반도 고대국가 시기 백제의 역사·문화와도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곰나루 설화>는 역사·문화적 담론과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공주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지 8곳 중 2곳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수촌리 유적, 정지산 유적 등 백제 문화 유산이 산재한다.³⁰⁾

29) 김창현은 <곰나루 설화>의 의미를 죽음과 정(情)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설화의 향유층인 민중들은 정(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투합함으로써, 보편적이고 비가역적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설화는 한 남자에 대한 정 때문에 죽은 곰이, 그 정으로 인해 물화(物化)하여 금강의 수호신이 된 이야기인 것이다. 김창현, 「공주 지역 설화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그 의미- ‘곰나루 설화’의 교육 가능성 탐구를 위하여」, 『교육논총』 58(3), 공주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원, 2021, 16쪽. 엄원희는 곰 신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공존에 대해 파악하면서 <곰나루 설화>를 다루었다. 고대인들은 공포의 대상인 자연을 숭배하여 공포를 극복하고 그 대상과 합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자연과 인간의 ‘결혼’으로 표현되었으며 고조선과 동북아시아에 나타나는 곰 신앙 내지 곰 문화인 것이다. <곰나루 설화>의 비극은 자연과 인간이 결혼할 수 없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표현한 것이면서, 그것이 곧 비극이라는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엄원희, 앞의 글, 43~44쪽.

30) 공주 지역의 백제 문화유산의 가치와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이남석, 「공주지역 백제문화유적지의 유산적 가치-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검토」,



[그림 4] 요령성 출토 청동 장식³³⁾
(출처: 문화일보)

백제의 웅진 천도와 지역의 세력, 웅진 도읍기의 백제 문화, 신앙과 사상 등과 관련된 문화 유적과 더불어 이른바 ‘홍산(紅山)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도 기획해볼 만하다. 홍산 문화는 중국의 중원과 구별되는 동북지역에

서 발전한 문화로 신석기 후기 요서(遼西) 일대를 중심으로 번영한 문화를 일컫는다. 홍산 문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문화가 신상(神像)이나 의례용 옥기 등에서 곰을 모티프로 사용한 점, 고조선의 묘제와의 연관성 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³¹⁾ 고고학적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세심한 판단은 요원하지만,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곰 신화와 신앙, 그리고 공주의 <곰나루 설화>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³²⁾ 굳이 홍산 문화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더라도, 동북아시아의 각종 곰 문화를 대표하는 거점 문화 공간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 넓게는 유라시아, 좁게는 동북아시아의 곰 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개발을 선제적으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백제문화』 4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193~194쪽.

31) 김정열,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한국상고사학회, 2017, 218, 239쪽.

32) 넓게는 유라시아, 좁게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공통점을 가진 곰 문화를 찾을 수 있다. 곰 숭배 사고는 오랜 전통을 가졌으며 현존하는 유라시아 지역의 종족들에게 제의로 행해지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제의와 관련된 신화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광대한 지역적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내용과 사상성에 있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며, 신화적 구성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33쪽.

33) 이 청동 장식은 새 토템, 곰 토템, 범 토템, 이리 토템을 형상화한 것으로. 새는 한족, 곰은 맥족, 범은 예족, 이리는 고조선 후국족이 된 유목민족의 토템이다.

신용하, 「요령성 출토 새·곰·범 청동장식... ‘고조선=한·맥·예 연맹’ 증거」(신용

V. 결론

지역에서 생성·소통·전승된 지역과 밀착된 이야기, 즉 전설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과거 전설은 지역에 한정해서 전해온 단순한 옛날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오늘날 전설은 지역민의 삶·사유·문화·역사가 응축된, 지역의 정체성을 담지한 주요 문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설 자체에 대한 평가나 접근 방식에서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전설에 대한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다. 지역의 문화 산업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전설은 스토리텔링의 원천 자료이자 모티프나 배경이 되며, 개발의 논리를 제공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설화를 토대로 개발된 지역의 콘텐츠는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규정하는 순환 체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지역 설화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의 의의와 가치가 인정되고 개발 논의와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개발 방안이나 방향에 대한 심화되고 체계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설화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의 방법은 응당 자의적이거나 무작위의 취사 선택이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의 원천인 설화에 대한 분석 방법과 설화를 토대로 콘텐츠의 개발 방법이 상호 유기적이며 통합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지역 설화 텍스트의 분석과 설화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하였다. 3항성 범주를 활용한 서사 분석 틀을 충청도의 대표적 지역 설화라 할 수 있는 <곰나루 설화>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틀을 연계·확장하여 콘텐츠 개발 방안을 기획하였다.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은 세계와 인간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보

하의 인류 5대 ‘古朝鮮문명’ ⑦고조선 태동과 정치적 기반), 『문화일보』(2019. 9. 11)

편 범주로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 관계성, 법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1차 분석은 전설 서사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고, 2차 분석은 전설 서사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3차 분석은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결합하여 종합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설의 서사 텍스트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의 체계적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1차성 분석을 토대로 설화의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고, 2차성 분석을 토대로 전설의 지시 대상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고, 3차성 분석을 토대로 전설의 의미와 해석 차원에서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각각의 분석을 토대로 한 개발 방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개별화·항목화하여 수립할 수 있고 종합화하여 기획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설 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화의 방향과 방안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도는 개별 사례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 『忠南鄉土誌』, 京人文化社, 1935.
- 공주군지편찬위원회, 『공주군지』, 공주군유도회, 1957.
- 임헌도, 『한국전설대관: 백제고도공주지역』, 정연사, 1973.
- 최상수, 『조선민간전설집』, 을유문화사, 1947.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Ⅱ), 조은문화사, 2002.
- 디지털공주문화대전(gongju.grandculture.net), <곰나루 전설>, <곰사당>
-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73~203쪽.
- 강현모, 「백제 건국신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307~338쪽.
- 구중희, 「고마나루 설화의 민속학적 의의와 활용 방안」, 『한어문교육』 1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7, 168~195쪽.
- 김균태, 「곰나루 전설의 변이와 의미」, 최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167~185쪽.
- , 「公州地域의 公傳說放」, 『한남어문학』 13,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7, 291~304쪽.
- 김기덕·최승용, 「경북 포항시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방안-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칠포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122~149쪽.
- 김만식, 「설화의 문화 콘텐츠화 전략에 대한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3),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2, 142~154쪽.
- 김유미,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111~142쪽.
- 김정열,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한국상고사학회, 2017, 215~250쪽.
- 김창현, 「공주 지역 설화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그 의미- ‘고마나루 설화’의 교육 가능성 탐구를 위하여」, 『교육논총』 58(3), 공주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원, 2021, 1~18쪽.
- 김현선, 「동북아시아 곰신화 비교와 곰의례 연구-한국, 만주, 아이누의 곰신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5,

157~235쪽.

- 김혜정, 『『於于野談』소재 <암골과 함께 산 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45, 동양고전학회, 2011, 127~154쪽.
- 박미선,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화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5(4), 한국지역문화학회, 2018, 87~112쪽.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신용하, 「요령성 출토 새·곰·범 청동장식... ‘고조선=한·맥·예 연맹’ 증거」(신용하의 인류 5대 ‘古朝鮮文明’ ⑦고조선 태동과 정치적 기반), 『문화일보』(2019. 9. 11).
- 신호림, 「봉정사 창건 설화의 두 서사적 층위와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81~210쪽.
- 염원희, 「한국 곰 신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문제」,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2011, 29~47쪽.
- 오세정,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콘텐츠 교육 방향-구비설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5~29쪽.
- _____,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9~68쪽.
- _____, 「전설의 서사론-3항성에 기초한 서사 분석 모델 기획」, 『기호학 연구』 65, 한국기호학회, 2020, 71~96쪽.
- 유정월,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7~31쪽.
- 윤영아·최선, 「백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공주지역 상설공연 정착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8(1), 한국무용학회, 2018, 43~51쪽.
- 이규훈, 「‘거타지’설화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한국콘텐츠학회, 2008, 119~127쪽.
- 이남석, 「공주지역 백제문화유적지의 유산적 가치-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검토」, 『백제문화』 4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185~202쪽.
- 이원영, 「구비문학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현대적 전승 양상」,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05~137쪽.
- 이장웅, 「百濟 熊津期 곰 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穴寺」, 『史叢』 7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0, 245~280쪽.
-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 이지훈, 「국내 문화원형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문화 기획 연구: 제주 설화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7),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259~269쪽.
- 이호상, 「지역 문화콘텐츠 기반 문화상품의 융·복합적 개발방안 고찰-부산지역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0, 263~276쪽.
-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길찾기」,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219~255쪽.
- 정재진, 「처용설화의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9(4),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591~600쪽.
- 정해창, 『퍼스의 미완성 체계-프래그마티시즘』, 청계, 2007
-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525~536쪽.
- 조해진·박영호, 「판타지 장르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고전설화 연구-고전설화 “만파식적”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0, 565~577쪽.
-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1~20쪽.
- 최래옥,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123~155쪽.
- 코르넬리스 드 발, 『퍼스 철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 편집위원회 편, 『한국민속문학사전』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 편집위원회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A. J. Greimas, “The Interpretation of Myth: Theory and Practice”, Pierre Marranda, Ello Köngös Marranda ed., *Structural Analysis of Oral Tradi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71, pp.81~121.
- Charles S. Hardwick ed., *Semiotics and Signif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A Study on the Contents Development Plan for Local Folktales: Analysis and Development of <Folkale of Gomnaru> using Peirce's Triadic Category Model

Oh, Se-Jeong · Yoon, In-Sun

Today, local folktales, legends are recognized as major cultural assets that hold the identity of the region, condensing the lives, thoughts, culture, and history of the local peop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s related to the local cultural industry, legends are the source of storytelling, motifs and backgrounds, and are the main basis for providing the logic of development. Although contents development based on local folktales are being promoted, in-depth and systematic discussions on important development plans or directions are not being properly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method of the folktale, which is the source of development, and the content development method should form a mutually organic and integrated system. In this paper, Peirce's triadic category model was used to devise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del for analysis of local folktale text and content development of folktale. The narrative analysis framework using the triadic category was applied and analyzed to <folktale of Gomnaru>, a representative regional story of Chungcheong-do, and a content development plan was planned by linking and expanding the analysis framework.

Peirce's triadic category model is a universal category for understanding the world and human way of thinking, and it is a good tool to understand the existence, relationship, and law of an object. The first analysis is to identifies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legend narrative, the second analysis is to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end narrative and the referent, and the third analysis is to identifies the comprehensive meaning by combining the first analysis and the second analysis. This analysis is not limited to analyzing the narrative text of the legend, but

can be extended to a systematic method of content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plan at the storytelling level of the legend is explored based on the primary analysis, the development plan at the referent level of the legend is explored based on the secondary analysis, and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level of the legend is explored based on the tertiary analysis. This integrated method of narrative analysis and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 a practical development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cases beyond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case studies.

Keywords : local folktales, legends, cultural contents, triadic categories, narrative analysis, content development, <folktale of Gomnaru>

투고일: 2022. 03. 21./ 심사일: 2022. 04. 13./ 심사완료일: 2022. 04. 14.